

◆ Teacher's College and the Libraries in Korea; Focussed on the 16 Teacher's Colleges.

教育大學10年과 圖書館

—全國 16개 教大圖書館을 中心으로—

李 根 鐵
(仁川教育大學 圖書館學講師)

一. 머 리 말

教育大學은 1961년 9월에 공포된 “教育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의하여 전국 18개 사범학교가 폐지되고 1962년 3월부터 2년제 사범대학으로 教育大學이 창설되어 우리나라 初等敎員養成制度에 획기적 전환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10년동안 교육대학이 걸어온 길은 창설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양적인면과 질적인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즉 1962년 10개 육대학이 창설되었으나¹⁾ 현재 전국 16개 교육대학으로 증가되었으며 학생정원도 초창기 1,960명이던 것이 현재 12,000명의 정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敎授도 창설당시 불과 1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16개 교대 敎授要員은 무려 800여명이나 된다. 대학행정을 전담하는 행정직원도 초창기 약 50명에서 420명선을 넘어서고 있다.

敎授, 學生, 行政職등 인원의 증가와 함께 施設面에서도 강의실, 실험실등 제반 시설이 초창기에 비하여 약 5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²⁾ 이같이 物量面에서 많은 발전을 한 教育大學 10년史에 있어서 研究를 사명으로 하는 大學의 중심기관인 圖書館의 발전은 어떠한가.

도서관 역시 施設의 확충과 藏書의 증가등으로 착실한 발전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施設과는 달리 외형적인 발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現教大 圖書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研究와 教育을 使命으로 하는 大學敎育의 主目的은 時代의 변천과정에 따른 가치관의 혁명에 있다 이같은 大學敎育의 改革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大學

圖書館이 지적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 볼때 아직도 전통적이고 초보적인 도서관 봉사의 태두리를 맴돌고 있는 教大 圖書館은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면이 더 많다.

여기서 筆者는 오늘의 教大도서관을 현대교육사조에 바탕을 둔 大學도서관의 사명을 바탕으로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도서관의 위치를 재평가하며 나가서 우리나라 大學圖書館 발전의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二. 教育大學의 性格과 圖書館의 位置

大學의 使命은 研究와 教育에 있으며 도서관은 敎授 學生의 研究, 調查活動을 지원하고 大學敎育에 적극참여하는 기본적 教育施設이다. 그러므로 教育大學의 目的도 이와 다를 수 없으며 教大圖書館 역시 대학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은 우리나라 初等敎育을 담당할 유능한 敎師養成을 目的으로하는 점에서 一般大學과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一般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敎授研究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³⁾

교육대학은 2년의 짧은 수업년한을 갖고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수 밑에서 敎職이라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二世國民을 교육할 유능한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文敎部에서 규정한 교육대학의 성격에 보면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고 증진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반대학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며 확고한 敎職者의 정신을 체득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과정과 운영을 필요로 하는 대학이다⁴⁾라고 하였다

1) 서울, 부산, 인천, 춘천, 청주, 공주, 전주, 광주, 대구, 전주의 10개 교육대학이 제1차로 창설되었다.

2) 남덕우 교육대학 10년의 회고와 문제점(인천교대 교육연구소, 논단, 1972, 제1권 제1호) p.9.

3) 敎育法 第108條

4) 교육대학교육과정심의자료, 문교부, 1968.7.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대학의 성격을 요약하면 첫째, 敎大는 敎職에 대한 준비(Preparation for teaching profesion)과정이며 둘째 現職敎師의 知識機能향상(Inservice Education)이다. 즉 교직을 위한 지식기능을 피하려는 大學에서의 교육과 현직교사의 교양과 자기의 지식을 계속 최신의 것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研修教育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教育大學은 一般大學과 그 目的과 性格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敎大도서관은 일반대학 도서관의 기능을 갖는 외에 교육대학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창조적 교육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대학교육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데는 그 대학 교육목표에 의한 교육계획수립 및 수행에 대한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봉사 체계를 갖추는데 있는 것이다 훌륭한 도서관 없이 대학기능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圖書館이 그 大學의 두뇌적 위치에서 계획하고 조직할 때 大學의 기능은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敎大도서관은 敎大의 教育기능 발휘를 위한 두뇌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初等教育 발전과 유능한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三. 教育大學 圖書館의 現況

敎大圖書館은 敎大 장설과 함께 설립 되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敎大가 사범학교 施設을 인수하여 敎育을 시작하였던 것같이 도서관도 사범학교 도서관이 갖고 있던 設備과 藏書를 그대로 인수받아 출발하였다 敎育大學 10年史에 여러가지 어려운 진통과정은 도서관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으니 창설당시 사범학교에서 인수받은 藏書와 기타 내부설비는 인수 인계과정의 불철저로 대부분의 자료적 가치가 있는 주제도서 및 참고도서는 분실되었고 학술지와 논문집들은 전무한 상태였다.

인수받은 장서의 대부분은 대학도서관 장서로는 정당치 않은 교과서 및 소설 종류뿐으로 敎大圖書館은 藏書의 확보문제가 큰 문제였다.

施設면에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교실 두 셋을 개조하여 도서관 열람실로 하였으니 효과적 봉사를 위한 기능적인 도서관 시설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는 점차 교육대학이 연륜을 쌓아 가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서관을 맡아 운영할 사서의 부족이었다. 도서관 전문직인 司書직원의 부족으로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불가능하였으니 그 여파가 지금까지 敎大圖書館

자료정리 과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된 敎大圖書館은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몇개 대학에서는 의형이나마 도서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敎大도서관은 우리나라 일반대학 도서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허약한 상태이며 大學圖書館의 기본적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요원한 것이다.

교육대학 도서관현황 (表 1)⁵⁾

구분	시 설			장 서			司書職 員 현황
	도서관 연령 수	열람 실 수	독립 건 물	東 書	西 書	계	
대학							
강릉교육대	194명	112석	결 용	3, 275	349	3, 624	
공주교육대	70명	200석	결 용	13, 817	2, 899	16, 716	司書補
광주교육대	168명	160석	결 용	20, 267	4, 725	24, 992	司書補
군산교육대				6, 303	1, 440	7, 743	司書補
대구교육대	192명	196석	독립건 물	17, 418	3, 691	21, 109	司書補
마산교육대	160명	227석	결 용	3, 717	320	4, 037	
목포교육대	120명	120석	결 용	8, 273	2, 702	10, 975	
부산교육대	115명	110석	결 용	9, 698	6, 210	15, 908	
서울교육대	94명	150석	결 용	12, 821	2, 370	15, 191	司書補
안동교육대	415명	72석	독립건 물	8, 380	1, 508	9, 888	
인천교육대	300명	176석	독립건 물	13, 132	4, 106	17, 238	行政主 事補
전주교육대	224명	200석	독립건 물	11, 791	3, 479	15, 250	司書補
제주교육대	30명	44석	결 용	7, 129	1, 181	8, 310	
지주교육대	150명	166석	결 용	10, 427	1, 360	11, 797	
청주교육대	75명	102석	결 용	9, 594	2, 594	12, 188	助 敎
춘천교육대	118명	144석	결 용	14, 000	4, 000	18, 000	

1. 施設과 設備

敎育大學은 시설면에서 아직 대학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60%~70%정도의 시설規準에 머물고 있다⁶⁾ 따라서 도서관 건물을 독립시설로 갖고 있는 대학은 대구 안동 인천 전주 4개 대학뿐이며 나머지 12개 대학은 아직도 도서관 건물을 갖지 못하고 대학시설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형편이다 敎育大學의 시설기준에 대한 이상적인 규정은 아직 없으나 도서관이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일반열람실, 특수열람실, 연구실, 사무실, 서고, 정리실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독립건물을 가져야하나 4개 대학만이 갖고 있을뿐 12개 대학도서관은 겨우 열람실

5) 이 表는 한국교육대학연합회가 주최한 제8회 전국교육대학 도서관분과 연구대회(1972. 9. 29~30)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6) 남억우, 前掲書, p.10.

정도를 갖고 있을 뿐이다.

전국교대의 열람석은 2,435석으로 학생정원 12,000명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설치 기준령이 요구하는 학생정원의 15%⁷⁾ 수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와 조사활동을 하는 관계로 이용자 한 사람이 최소한 2m² 이상은 확보하여야 한다.

敎大도서관, 열람석의 기준이 아직도 고등학교 도서관을 기준으로한 면적에 머물고 있어 이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에서는 최소한 학생정원 $\frac{1}{3}$ 을 수용할 수 있는 施設⁸⁾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볼때 敎大圖書館施設은 앞으로 계속 확충되어야하며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敎大도서관 시설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겠다.

2. 藏書와 資料수집

훌륭한 대학도서관은 체계있는 藏書構成에 있다.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藏書 그 자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構成되며 그 대학의 敎育目標 수행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평가에 있어서 藏書구성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역사가 짧은 敎大도서관은 장서의 구성이 빈약하다. 물론 초창기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현재 전국 敎大도서관의 총장서수는 212,968권으로 학생정원 12,000명을 기준으로 할때 학생 1인당 17.7권 꼴이 된다.

이 수자는 우리나라 대학설치 기준령에서 요구하는 학생 1인당 20권⁹⁾에도 미달된다. 우리나라 대학설치 기준령중 도서수에 대한 규정은 외국 대학도서관 경우보다 그 기준이 낮은 것이니¹⁰⁾ 敎大도서관의 藏書構成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藏書構成의 내용면에서 볼때 資料的 가치가 있는 藏書量은 훨씬 적을 것이다.

특히 敎大도서관 장서중 西書의 대부분은 초창기 외국 월조 기관으로 부터 기증에 의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대부분 교육대학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 많

다. 또한 출판 년도로 보아 벌써 제적 처리 하였어야 할 무가치한 도서와 복본이 수십권씩 되는 도서도 많으므로 정리의 보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敎大도서관의 빈약한 藏書構成의 원인중에는 資料수집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에 있다. 금년도 교육대학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14억7천만원과 경특 14억7천만원에¹¹⁾ 비하여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32,036,000원으로 너무 적은 액수이다.

물론 자료구입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학생 1인당 2,000원의 도서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서관 임직원들의 봉급과 수당등에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도서비가 독립예산이 아니고 자율적 경비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

외국의 경우 대학도서관 예산이 그 대학 총예산의 5~10%선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敎大도서관의 예산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계당국은 좀더 성의를 가지고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3. 司書職員

대학도서관이 훌륭한 施設과 藏書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데는 司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敎大도서관의 자료를 조직하고 효과적인 봉사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는 司書職員의 확보가 필요하다.

敎大도서관에 司書職員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근거한다. 이 습¹²⁾에 따르면 교육대학 도서관에는 약40명의 사서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대학에 1명씩 4級乙에 해당하는 司書補 티오가 있을 뿐이다. 이 티오는 교대 창설당시인 학생정원 1,960명일때 책정된 것으로 지금은 교수 학생 및 일반직을 포함하여 약13,200여명과 연수원 양성소 교육원등을 포함하여 봉사대상 인원이 거의 10배에 가깝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원의 티오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주목할것은 교대 창설당시 일반직원 50여명은 450여명으로 증원¹³⁾ 되었으나 같은 행정적근에 들어있는 司書職의 증원은 없었다.

7) 대학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4398호, 11조, 1969.12.4(개정)

8)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rch Libraries, 20 : 274, July 1959. p.278.

9) 一般大學은 學生 1인당 30권 敎育大學은 학생 1인당 20권이다.

10) 일본의경우 국립대학도서관의 장서기준은 인문과학계 학생 1인당 50권 자연과학계 30권을 기초로 매년 증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 남억우, 前揭書. p.9.

12) 교육대학에는 대학생수가 500인 이하인데 2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 수가 500인을 초과한때는 그 초과하는 800인 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13) 남억우, 前揭書. p.9.

위의 표를 보면 司書職 티오를 그대로 갖고 있는 대학이 6개 대학에 불과하다. 그 외의 대학은 사서직 티오를 확보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대학에 司書補 티오는 있으나 대학형편에 따라 티오 자체를 행정주사보(4級乙)로 전용하고 있거나 司書職 티오를 갖고도 도서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敎大도서관에는 전문적인 司書의 부족으로 조부수라는 이름으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도서관교육을 못받은 분들이다.

圖書館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司書職이 확보안된 敎大 도서관운영은 도서관발전과 敎育大學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엔 司書職의 職級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司書補는 行政직군에 속하는 4급에 해당한다. 敎大 자행정 부서(교무과, 서무과, 학생과)의 주무자가 4급급인 行政主事이므로 圖書館의 實務를 맡는 司書職도 4급급에 해당하는 司書로 직급을 올려야 한다. 이것은 司書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한 조치이다.

4. 奉仕活動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이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에 끝나는 소극적인 봉사라면 현대 도서관의 기능은 자료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봉사에 있다 즉 현대 대학도서관의 기능은 대학 교육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좀더 높은 차원에서의 교육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指定圖書制와 參考業務 등 학술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이다. 현재 교대도서관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하기에는 施設 藏書 그리고 司書職員이 너무 부족하다.

아직도 敎大도서관은 施設의 확충과 資料수집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물론 몇개 도서관에서는 부족한 施設과 빈약한 藏書에도 불구하고 책임새 있는 자료 조직과 봉사 체제를 갖추어 열과 성으로 도서관 봉사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위낙 빈약한 敎大도서관 형편으로는 효과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할만한 여력이 없다. 현재 敎大도서관 봉사의 일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 대부분이 폐가제에 의한 열람봉사를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대부분 개가제를 실시하였으나 자료의 분실등 문제점이 많아 점차 폐가제로 열람 방식을 바꾸었다.

② 이용자들의 폭넓은 자료활용을 위하여 관의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학생의 경우 3일부터 7일까지 잡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이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출책수는 1권이다.

敎大圖書館봉사가 아직 열람봉사에 머물고 있어 대학교서관 봉사의 핵심인 참고봉사 등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 공주 춘천 인천등 몇개 도서관에서는 학술지 및 논문주제 색인과 指定圖書制등을 시도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대도서관 발전에 낙관적인 희망을 갖게 한다.

四. 맺는 말

敎育大學 圖書館을 大學圖書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 육성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敎大도서관운영에 직접 간여하고 있는 모든 圖書館人들은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敎大도서관의 社會的 認識을 높이고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이제 筆者는 敎大圖書館 발전을 위하여 정부및 관계당국에 몇가지 제언을 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 ① 文教당국은 敎大圖書館 育成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생 도서비는 독립예산으로 하여 도서관자료수집에만 쓰도록 한다.
- ③ 文教당국은 敎大圖書館에 圖書館法 施行令에 규정된 司書職 티오확보를 위하여 司書職의 증원을 하여야 하며 職級을 司書補에서 司書(四級甲)로 올려야 한다.
- ④ 敎育大學 당국은 司書職 티오를 一般行政職으로 전용하지 말아야 하며 司書職 확보에 노력토록 한다.
- ⑤ 敎大圖書館에 근무하는 司書職員은 資質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 협회에서 수행할

바람직한 사업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본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우리 도서관계를 더욱 더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의 「사업아이디어」를 회원 여러분께서 얻고자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분은 사업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셔서 당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